



농식품부, 현장 중심 규제개선 본격화



▲농림축산식품부 제3차 농식품 규제합리화 전략회의

태양광·푸드테크·반려동물까지 현장 체감형 제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8일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제3차 농식품 규제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농업·농촌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50개 규제혁신 과제를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식품 업계와 민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해 현장 간담회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발굴된 과제 중 체감도와 시급성이 높은 사안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과제는 △에너지 전환과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 △국

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국가 책임이 강화하는 농정 전환 △사립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 △민생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 50개로 구성됐다. 먼저 농촌 에너지 전환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저수지·담수호 수상태양광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햇빛소득마을' 조성 시 재산세율 인하 및 종합부동산세 면제 등을 추진한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청년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후계농업시설 설

치를 허용하고, 농촌특화지구 내 필수시설은 농지전용 절차를 신고제로 완화한다. 빈집 철거 지원 사업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 요건을 완화해 소규모 농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고품질 쌀 유통 지원 대상을 일반 RPC까지 넓힌다. 친환경 인증 제도 역시 비의도적 농약 오염 시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비

식품 분야 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동물용의약품 위탁생산기업의 제조업 허가 요건을 완화한다.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기준도 완화하고, 푸드테크 계약학과는 연 1회 모집 및 박사과정까지 확대 운영한다.

농업인 소득 안정 강화를 위해 면적직불금 농의소득 기준을 상향하고,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을 인상한다. 또한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상한을 높이고, 재해 발생 시 임대료 감면 기준을 현실화한다.

반려동물 분야에서는 동물 미용업 출장 영업과 이동식 장묘시설을 허용하고, 동물병원 진료비를 개별 병원별로 공개하도록 개선한다. 특수목적 영양사료 기준도 마련해 보호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민생 규제 개선도 추진된다.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 의무를 플랫폼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고병원성 AI로 피해를 입은 토종닭 부화장에도 소득안정 지원을 확대한다. 전통시장 농항상품권 사용처는 골목상권까지 확대되며, 혼합인산 제품의 연산 표시 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송미령 장관은 "농식품 규제합리화는 현장과 괴리된 불합리한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작은 변화들이 모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etimes.com

미생물 분야 콜라스 제공인시험기관 재인증 획득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협인증원)은 최근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로부터 미생물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ISO/IEC 17025) 재인증을 획득했다.

ISO/IEC 17025는 시험기관의 품질경영체제와 기술적 역량을 평가하는 국제표준으로, 시험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기준이다. 콜라스(KOLAS) 인정 시험기관은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

호인정협정(ILAC-MRA)에 기반해 국내외에서 공신력을 가진다. 이번 재인증을 통해 해협인증원은 미생물 시험·분석 분야의 시험 수행 능력과 장비 운영 체계, 품질관리시스템, 전문 인력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았다.

이올라 해협인증원은 급변하는 세계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할랄 관련 하람(Haram) 성분 분석 시험법에 대한 콜라스(KOLAS)인정 범위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식품 기업의 중동 및 동남아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NH농협금융-마야파다그룹, 업무협약 체결

은행·증권·WM 연계사업 확대 기대

NH농협금융지주(회장 이찬우)는 5월 2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 마야파다 그룹 본사에서 양 그룹 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마야파다 그룹은 금융, 헬스케어, 호텔, 부동산 등 다양한 사업 라인업을 보유한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대기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농협금융은 동남아 현지에 선진 금융기법을 공유하는 한편, 상호호혜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공동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년간 양사가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긴밀히 노력한 결실로 평가된다. 농협금융은 이를 계기로 아세안 최대 경제대국인 인도네시아와 금융분야 교류를 확대하고, 향후 현지 진출을 위한 시장 연구 기회를 체계적으

로 확보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 농협금융의 디지털전환(DT)·리스크관리 분야 노하우 공유를 시작으로, 은행, 증권, 캐피탈 등 농협금융 계열사와 마야파다 그룹 자회사 간 IB(투자금융), 브로커리지, WM(자산관리) 연계영업, 현지 시장조사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NH농협금융은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증권 현지법인을 운영 중이며, 주요 계열사의 현지 진출을 다각도로 검토해왔다. 인도네시아는 2억 8천만명에 달하는 인구를 보유한 거대시장이자 글로벌 금융사들의 전략적 요충지로 꼽힌다.

김태영 기자
ktya0712@daum.net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왼쪽)과 타히르(Tahir) 마야파다그룹 회장(오른쪽)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농협금융지주 제공)

농진원, 기능성 콩 산업화·지역 상생 협약 체결

화순군·도곡농협·경북대학교·지역 가공업체와 협력체계 구축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이석형, 이하 농진원)은 지난 15일 화순군청에서 화순군, 도곡농협, 경북대학교, 지역 가공업체 등과 함께 기능성 콩의 생산·가공·산업화 및 지역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능성 콩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여 기관들은 기능성 콩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생산·가공·유통이 연계된 지역 산업 모델을 함께 만들어 갈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기능성 콩 생산 확대 및 재배 기술 보급 ▲기능성 식품 연구 및 제품

개발 ▲지역 기반 가공산업 활성화 ▲농업인 소득 향상 및 판로 확대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 모델 구축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농진원은 기능성 콩 우량종자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체계를 마련하고, 품질 관리와 생산기술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능성 콩 산업화 기반을 조성하고 농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기능성 식품 시장이 확대되면서 기능성 성분을 강화한 콩 품종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지역 공동영농 기반과 가공산업을 연계해,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가공·유통하는 상생형 산업 모델 확산

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순군은 제배단지 조성 및 행정 지원을 받고, 도곡농협은 공동영농 기반의 생산·유통 체계를 구축한다. 경북대학교는 기능성 성분 연구와 기술 지원을 지원하며, 지역 가공업체는 기능성 콩을 활용한 가공 제품 개발과 시장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석형 농진원장은 "이번 협약은 기능성 콩 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상생 모델을 확산하는 뜻깊은 협력"이라며 "농진원은 우량종자 보급과 현장 기술지원을 통해 기능성 콩 산업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etimes.com

보령스마트팜,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신제품 3종 출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보령스마트팜"은 "농업경영체" 등록 후,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새싹삼 밀크씨슬 홍삼플러스, 산양유 피쉬 콜라겐 프로바이오틱스, 콜레우스 차전자피 분말 3종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보령스마트팜"은 충남 보령 출신의 이행수 대표이사가 2022년 5월에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입니다. 이 대표는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던 중, '우리 것을 만들어 팔아보자'라는 신념으로 새싹삼을 활용한 건강한 먹거리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새싹삼은 수소물과 LED 재배로 키워 농약 없이 재배한 웰빙 채소로, GAP 인증을 획득해 소비자들께서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온가족 새싹삼 밀크씨슬 홍삼플러스, 산양유 피쉬콜라겐 프로바이오틱스, 콜레우스 차전자피 분말 이 제품들은 자연 유래 성분을 바탕으로 바쁜 현대인들의 건강을 생각하여 개발되었습니다.

보령스마트팜은 앞으로도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K-웰빙푸드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이번 신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령스마트팜 공식 홈페이지 www.bsmtf.com 또는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 상담실 041-931-1373 www.bsmtf.com

